

토론문 『세대 게임』(전상진 지음, 문학과 지성사, 2018)

박권일 (사회비평가)

1. 의의

이 책은 세대 담론에 관한 학술서라기보다 거의 ‘세대론 대응 매뉴얼’처럼 읽힌다. 그만큼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다. 그러나 분석은 촘촘하고 묵직하다. 저자 전상진은 세대 프레임의 작동 방식, 즉 ‘세대 게임’의 전모를 꼼꼼히 밝혀냄으로써 우리가 세대 프레임에 휩쓸리지 않고 사회 문제를 보다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는 서두에서 파울 바츨라비크의 우화를 소개한다.

열쇠를 찾는 취객을 돕던 경관이 물었다.

“여기서 열쇠를 잃어버린 게 분명해요?”

취객이 답했다.

“아니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저기는 가로등이 없어서 너무 어두워요. 안 보이면 못 찾잖아요.”

세대 프레임, 즉 사회현안을 세대 문제로 해석하는 프레임이 바로 이 가로등 역할을 한다. 가로등은 물론 밝지만, 열쇠는 거기에 없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세대 전쟁의 해법 찾기가 어려운 까닭은 그것이 세대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대 전쟁이 아닌 것을 세대 전쟁으로 보고 그 해법을 찾으니 찾아질 리 없다.”(131쪽)

저자가 말하는 세대 프레임은 비유컨대 맥거핀이다. 관객은 탁자 아래 폭탄이 언제 폭발할지 몰라 조마조마하며 주의를 집중하지만,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것은 터지지 않는다. 사회에는 이런 맥거핀 장치들이 많다. 실제로 적대와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이 아니라 엉뚱한 곳이 지목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진짜 범인, 핵심 모순은 은폐되어 버린다. 세대 프레임은 실제 적대를 왜곡하거나 비가시화하는 사이버 적대(pseudo hostilities)이다.

저자의 제안은 명료하다. 세대 게임의 “플레이어”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그들이 짜놓은 전쟁터에 참전하기를 의심하고 주저하라는 것이다. 특히 “진보세력은 신자유주의에는 저항하면서도 청년 세대 메시아론과 인구학주의에 쉽게 투항한다”(292쪽)는 비판은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2. 주요 내용 및 개념

세대 전쟁과 세대 투쟁, 이 두 가지 담론이 세대 프레임의 근간을 이룬다. 둘 다 갈등 담론이지만 내용과 주체는 다르다. 또한 세대 전쟁은 주로 (복지 등의) 정책을 언급하고, 세대 투쟁은 (광장의) 정치 세력들 간의 갈등으로 묘사된다.

□세대 전쟁

최근 들어 청년세대와 노년세대 평가가 역전되었다.

“청년은 빛나는 주체에서 가련한 대상으로 몰락했고, 노인은 부양할 대상에서 탐욕스런 전사로 변신했다. 불과 10~20년 사이에 청년과 노인의 위상이 변했다.”(50쪽)

“문제해결의 주체였던 청년은 문제로 전락했다.”(52쪽)

세대 전쟁은 “국가가 제공하는 재원이나 사회적 기회(일자리 등)를 둘러싼 세대들의 다툼”(87쪽)을 가리킨다. 세대 전쟁론은 그러한 주장들을 통칭한다. 세대 전쟁론은 저출산·고령화, 노인지배, 세대회계 및 형평성, 복지국가 세대의 네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정작 이 담론의 인기 비결은 내용상의 쟁점 때문이라기보다 선정적 레토릭에 있다. 대표적 논자인 박종훈은 베이비붐 세대(5060)와 에코세대(2030)의 대립을 부각시킨다. “부자아빠가 가난한 자식의 밥그릇을 훔쳤다”는 식이다.

세대들이 한정된 복지자원을 놓고 제로섬 게임 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세대 전쟁론자들의 단골 메뉴다. 즉, 자원이 노인에게 몰렸기 때문에 청년들이 빈곤해졌다는 것이다. 이스터린은 이것이 인과성 없는 두 가지 현상을 인과적으로 연결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늙은이들의 사정이 나아진 까닭은 복지 정책이 개선되었기 때문이지만, 젊은이들의 사정이 악화된 것은 복지국가가 그들 몫을 빼앗아서가 아니라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116쪽)

한편, 저자는 세대 전쟁론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세대 전쟁론은 대중매체의 논리에 따라 세대 관계의 복잡성과 다원성을 무시하고 세대의 추상성과 가소성을 극대화하여, 젊은이와 늙은이 또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대립을 선과 악의 싸움으로 극화한다.”(121쪽)

□세대 투쟁

촛불과 맞불의 대결을 세대 투쟁,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투쟁으로 보는 관점이 세대 투쟁론이다. 그러나 촛불집회 참여자는 연령적으로 순수하지 않지만, 맞불집회는 순수하다. 전체 국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맞불은 소수다. “촛불과 맞불은 대립하지만 대등하지는 않다.”(198쪽) 맞불집회를 주도한 세대는 “시간의 실향민이 되어 농익은 실제 세대로 진화한 시간의 향우회”(273쪽)였다.

□시간의 고향, 시간의 실향민, 시간의 향우회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표현들이다. 세대 문제에 천착한 저자의 역량이 오롯한 대목이기도 하다. ‘시간의 고향’ ‘시간의 실향민’ ‘시간의 향우회’ 같은 말은 오늘날 세대 정체성의 특질과 변화를 적절히 묘사한다. 세대가 다른 집합적 정체성인 민족, 인종, 계급 등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시간이 정체성의 근원이 된다는 점이다.

‘시간 고향’은 “기억된 감정의 풍경”(219쪽)으로서 공간적 고향과 달리 상대적으로 불변한다. ‘시간의 향우’는 시간 고향의 친구들로, 비슷한 시기를 비슷한 연령대에 살아냈기에 얻어진 유

사한 경험에서 비롯한, 공통의 감정과 감각을 공유한다. ‘시간의 실향민’은 시간 고향을 공격 받고, 능멸당한 사람들이다. 1970년대 박정희 시대가 시간 고향인 이들에게, 그 시기를 단지 독재자에 억압받던 암흑기로 묘사하는 것은 건디기 힘든 고통이다.

□세대 프레임의 가소성

세대 개념의 “탁월한 가소성은 모든 것을 지칭하지만 아무 것도 지칭하지 않고, 바로 그렇기에 정치 비즈니스에 적격”이다. 그러나 세대 레토릭은 전혀 다른 층위, 즉 사회 전체, 조직, 가족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을 뒤섞어 버린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려면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지만,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하거나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목적에만 충실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로버트 월(Robert Wohl)¹⁾은 모든 사안에 세대 프레임을 들이대는 태도를 세대주의 또는 세대주의자라고 불렀다.”(301쪽) 세대를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는 편견에 사로잡히면 소모적인 세대갈등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다.

3. 질문들

□인지부조화 개념

인지부조화(“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는 전상진의 저작 『음모론의 시대』에서 음모론을 추동하는 사회심리적 기제를 설명하며 주요하게 다뤄졌으며, 이 책에서는 주로 “시간의 실향민”, 극우파의 행동을 해명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이 책에서는 인지부조화의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현실에 맞게 기대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기대에 맞게 현실을 창조하는 극우파”(243쪽)

“인지부조화를 이야기하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대를 망상이라는 식으로 평했지만, 그것은 지극히 ‘현실 순응적’인 관점일 수 있다. 기대와 현실의 부조화, 또는 다양한 신념들의 불일치에서 비롯한 인지부조화는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애쓰게 만드는 문화 발전의 동력임이 분명하다.”(244쪽)

“하라리는 인지부조화의 힘에 대해 말한다. “인지부조화는 흔히 인간 정신의 실패로 여겨진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인류 발전의 핵심 자산이다. 만일 사람들에게 모순되는 신념과 가치를 품을 능력이 없었다면, 인간의 문화 자체를 건설하고 유지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사피엔스, 조현욱 옮김, 김영사, 2015, 238)”(244쪽)

‘인지부조화’와 ‘인지부조화 조정과정’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전상진과 하라리의 글에서는 구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인지부조화는 ‘내면의 엔트로피’를 높여 고통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그 자체는 긍정/부정 등 규범적으로 가치 평가할 수 없는 인간 보편의 인지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인지부조화 조정과정은 1)기대를 현실에 맞추는 행위 또는 2)현실을 기대에 맞게 변형시키는 행위로서, 요컨대 ‘내면의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려는 능동적 과정이다. 여기서 2)‘현실을 기대에 맞춰 변형시키는 행위’를 다시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1) 본문에는 로버트 ‘볼’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그는 미국 태생의 학자이다. 독일식으로 읽어야 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2-1)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 구조를 실제로 변혁하는 실천.

2-2)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왜곡 인식하는, 일종의 ‘정신승리’

극우적 반지성주의에서 지적된 인지부조화 문제는 ‘인지부조화 조정과정’ 문제이며 그중에서도 2-2)에 해당한다. 물론 2-2)가 누적·확산되면 2-1)로 전화할 가능성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전상진과 하라리가 말하는 인지부조화의 긍정적 측면은 2-1)에 가깝다. 그들이 말한 대로 이는 문화발전의 동력”“인류발전의 핵심자산”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반동, 퇴행, 복고의 에너지이기도 하다. 현실구조의 변동이 늘 진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지성주의-정신승리는 맞불만의 특징인가

저자는 “신촛불”과 맞불시민이 나뉘는 지점을 말하면서 정보편식과 사회적 지지를 든다.(210 쪽). 그런데 구촛불은 어떨까. 애당초 박근혜를 불신했던 “구촛불”들, 즉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당시 촛불집회에 나왔던 이들, 2008년 광우병 소고기 반대 집회에 나왔던 이들. 그들은 끝없이 내부의 “불순분자” “프락치” “빨갱이”를 색출하려 들던 “순수한 일반 시민들”이었다. 다수 촛불시민들의 이런 강박적 자기검열에 가장 격렬히 저항했던 주체는 10대, 20대 여성들이었다. 다음의 두 사례가 유명하다.

“100만 촛불 이후 언론에서는 모범적이고 성숙하며 시민의식이 돋보인 시위였다는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의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은 불량하고 미성숙하며 저열한 시민의식이 빛을 발한 시위였습니까? 지금의 그 기준으로 보면 그 운동들 역시 폭력집회였습니다. 아닙니까? 3.1운동 때 매국노 이완용은 ‘폭력시위는 법과 원칙을 어긴 것이니 엄중 조치해야 한다’며 ‘(시위를) 할 거면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시위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무조건 폭력시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돼 있는 저항권을 백번 활용해 국가권력에 불복종을 이끌어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벽증적으로 비폭력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고3여학생의 직설 “비폭력 프레임에 갇혀선 안 된다”>, 유튜브, 2016. 11. 19)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하면 제가 직면한 가정과 학교와 노동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제 삶의 문제가 박근혜, 최순실만의 책임, 잘못입니까? 제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은 박근혜, 최순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부모님, 반장들, 친구들, 선생님, 회사 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주촛불집회 19세 청년의 몽클 자유발언>, 유튜브, 2016. 12. 1)

소수 급진적 분파를 제외하면 촛불시민은 보수세력과 매우 유사한 인지적 특성을 보였다. 그들은 단지 맞불집회 어르신들을 ‘별종’ 취급하는 정도의 인지부조화에 머물지 않았다. 2007년 대선 당시 민주노동당 지지자 다수가 이명박을 지지했다고 폭로한 조기숙 씨, 2012년 대선 투표결과가 소위 K값이 1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했기에 명백한 조작선거, 부정투표라고 주장한 김어준 씨 등은 촛불의 전위들이었다. 이 주장들은 완전한 허구로 밝혀졌지만 사과나 해명은 없었고, 지지자들의 비판이나 항의도 없었다. 요컨대 촛불의 인지부조화는 많은 경우 올바르게 조정되지 않았다. ‘촛불’과 ‘맞불’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던 게 아닐까?